

그리스도왕 대축일

기도서 483면 (C해)

제1독서 : 2사무 5, 1-3

제2독서 : 골로 1, 12-20

복음 : 루가 23, 35-43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루가 23, 42).

□ 감 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양재철 신부

오늘은 전례주년 중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축일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진실된 왕이 되심을 묵상케 하는 날이다.

예수께서는 이상하게도 공생활 중 여러 차례 군중들로부터 왕으로 불리웠고 초대되었으나 그때마다 거절하신다. 예컨대,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이루신 후, 군중들이 빵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 할 때 이를 거절하신다(요한 6장 14~15절). 또한 번은 수난하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왕으로 모시려 한다. 그러나 끝내 유대인의 정치적 왕이 되시길 거절하신다(요한 12장 12~19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히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왕 축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어떠한 왕이신가? 다음의 성경말씀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밝혀 준다. 예수께서는 수난에 대한 세번째 예고를 하신 다음 제자들을 불러 놓고 말씀하신다.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십자가를 받들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마르코 10장 42~45절).

예수께서는 참으로 전 생애를 바쳐 섬기는 자가 되었고, 모든 이의 종이 되셨으며, 많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름으로 해서 우리와 세상의 참된 왕이 되셨다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점을 우리에게 확실히 지적해 주고 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 하나가 간청했을 때, 예수께서는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그야말로 이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선포이자, 십자가에 달리 시어 처형되고 승리하신 참 왕의 약속인 것이다. 죄수 하나를 통하여 들려주신 그리스도의 대답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 인류에게 주어지는 희망인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왕 축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를 참 왕이신 당신께로 부르신다. 당신을 닮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다(정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모두를). (월명동 천주교회)



추운 것은...

—어느날의 일기

계절은 속일 수 없는지라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오늘 아침, 기다리던 시내버스가 너무나 만원인지라, 세 대나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만다. 거기다가 등교시간에 쫓기는 학생들에게 밀려 버스를 두 대나 그냥 보내고 말았다. 그러나보니 시골 들판에서 40분이나 찬바람에 시달려야 했다. 덕분에 잠기운이 상륙하고 말았다. 속이 뒤틀린다. 시골 군수는 무엇하는 사람일인가! 서민들은 이렇게 멀어도 괜찮은 것인가! 시골에 사는게 죄인가, 아니면 자가용이 없는게 죄인가! 자꾸만 속이 뒤틀린다.

그러다가 문득 양심수인들이 생각났다. 노인네의 몸으로 고통받고 있을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회장 이돈명 변호사가 생각났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옛신문을 들춰 보았다. 10월 31일자 동아일보 6면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이변호사는 호송되기 직전 “나이가 들어 배고픈 것은 참아도 추운 것은 견딜 수가 없다”며 잠시 검사실에 틀러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구치소로 내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기도. 꽃날이 시큰해진다. 아침에 내가 겪은 추위는 그래도 양반이교나...

또 이런 기사도 보인다. —검찰 관계자들은 “범법을 한 이상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착잡한 표정. 한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재야에서 시국관련사건을 도맡아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이변호사로서는 수배를 받고 도피하던 중 자신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구하는 이씨를 인정상 차마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다소 정상이 참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언제까지 이런 시국이 계속될 것인가! 올겨울은 유난히도 더 추울 모양이다. 그러나 새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25일에 있을 기도회에 나가야 하겠다.

숲 정 이 산책



대심할...

양심이 탄압받는 시대

“나는 수배 당하고 있는 이부영씨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내 양심으로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민족 모두가 수난을 당하는 처지에 나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지난 10월 29일 밤,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로, 이돈명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남긴 말이다. 이돈명 변호사는 ‘부친 성고문 사건’의 변호인단 중 대표를 맡으면서 ‘시청로 남부 거부운동’을 주도하고, 억울하게 투옥되는 이땅의 양심법들을 위해 변호를 자처하며 나서는 등, 이땅에 정의 평화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해 오던 양심인이었다. 이돈명 변호사가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 법조인, 지식인의 양심 기준으로 수배중인 사람을 보살피겠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 사태를 접하며, 양심이 심판받는 이 시대에 깊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 이 사람 혼자 뿐인가? 얼마전 부친 성고문 사건이 폭로되었을 때, 명동성당 앞에서 양심을 선언하고 파직당한 국무총리실 서기관 김형배씨,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라는 데서 매일같이 각 신문사로 시달리던 이른바 ‘보도지침’이라는 것을 낱알이 폭로해버린 일선기자, 또한 왜곡된 역사관을 더 이상 가르킬 수 없다고 나섰던 교사들까지, 알개 모르게 수없이 양심을 보여 주었던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는가? 생존의 수단이 빼앗기고 좌천, 파직, 수배, 구속, 심판... 그야말로 온갖 방법으로 이들 양심인들의 실천은 탄압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심이 탄압받는 시대!
양심의 실천의 댓가가 곧 구속인 사회!
그러나 양심은 되돌려 거슬릴 수 없는 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은 그 댓가에 관계없이 끝내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역사의 정의로움, 바로 이 양심인들의 아름다운 삶이 열어놓은 신념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신뢰, 그 가능성은 바로 이들 양심인들을 통해 끊임없이 표출된 진리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이들, 예수의 표징을 몸 안에서 실천한 이 탄압받는 양심인들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더 뜨거운 감동을 전해주고 있으며, 우리를 반성케 하고, 우리를 살아 일어지게 하는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받을 댓가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이들 삶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 보는 것, 우리의 양심을 다시 꺼내어 손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영어된 몸인 그들이 받는 가장 값진 진정한 댓가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제때로의 댓가를 지불해야만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인 것이다.

“이 성전을 허물어 보아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요한 2:19).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성서교실 66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루가 23:42)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루가 23:26~43)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술잔 시종장에게 했던 말과 같다.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까...」(창세 40:14).

강도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다. 이 죄인의 고백과 원의가 예수로 하여금 매우 기쁘게 하여, 원의가 들어 허락되었던 것이다.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루가 23:43). 여기서 「낙원」이라는 말은 「극락」이라고도 하는데, 신약성서 가운데는 고린후서 12:14, 계시록 2:7에 나온다. 이것은 천상의 지복(至福) 장소라는 뜻으로 쓰인다.

강도 중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였다면, 다른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죄를 통회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일러준다. 첫째, 신앙은 결코 「경우」(境遇)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병고, 불행에 처했을 때 신앙에 귀의하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병고 또는 불행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였다고 말한다. 물론 역경 때문에 신앙에 귀의한 사람도 있겠으나, 대개는 불신앙에 빠져 하늘을 저주하고 땅을 원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주어진다. 우도(右盜)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했고 자기 죄를 아파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죄를 뉘우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죄없음을 알지 못한다면 죄의 절대성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다는 것이다. 인간은 마음속으로가 아니고 입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로마 10:10). 최후 순간의 회개가 전 생애의 모든 죄를 씻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은혜의 희망이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다」.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루리포니아)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로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외과 내)

김 안 과 의 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렌즈
원장 김 호 열 · 전 은 주(베로니카)
전주 코아백화점 옆 · 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교 구 소 식

- ☆ **축! 청년대회 "자, 일어나 가자"**: 23일, 장소-해성학교
- 1. **모든 양심수와 이돈명 변호사를 위한 기도회**: 일시-86. 11. 25(화) 오후 7시30분
장소-전주 중앙천주교회, 집전-박정일 주교
강론-김병상 신부(정평 부회장), 주회-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2. **반회장 연수회**: 장소-가톨릭센터
제 5차-11월 26일(수) 오후 2시~27일 오후 6시
제 6차-11월 29일(토) 오후 2시-30일 오후 6시
- 3. **교리교사 성탄준비 연수회**: 30일(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참가비-5개도시 4천원, 그의 지역-3천5백원
준비물-미사도구·필기도구, 교재비-1천원
- 4.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J·O·C)**: 전국본부 회장에 전주교구 김종성(베드로, 덕진본당) 형제께서 2년간 수교하시겠습니다
- 5. **착한 목자 수녀회 성소모임**: 23일(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5시 장소-전주 가톨릭센터, 주회-착한 목자 수녀회(서울 성동구 성수1가 5-8 (02)463-8055)
- 6. **반갑습니다: 서광석(요셉) 신부님께서 유학을 마치고 지난 17일 귀국하셨습니다**
- ※ **축! 영명 성 클레멘스(23일)**: 윤양호 신부님 축하합니다
- ◎ **10만인 성지순례**: 여산→천호간은 추위관제로 12월 1일부터 보류합니다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사료전시회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보내며 대립시기 동안 전주·이리·군산 3지역 순회 자료전시회 및 교회사 세미나를 계획하고 1차로 전주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신자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1. **지역별 일시 및 장소**
 - 1) 전주지역: ①자료전시: 11월 26일(수)~30일(일) 가톨릭센터
②교회사 세미나: 11월 29일(토) 오후 7시30분~10시30분
11월 30일(일) 오후 3시~6시, 중앙성당
2. **세미나 안내**
 - 1) 전주교구의 교회사적 의의: 최석우 신부(한국교회사 연구소장)
 - 2) 전주교구의 민족사적 의의: 조 광 교수(교려대)
 - 3) 전주사회가 본 전주교구사: 주명준 교수(전주대)
 - 4) 전주교구의 신심의 특성: 김진소 신부(호남교회사 연구소장)

10만인 성지순례

일	요일	1코스: 전주 순정어→치명자산	2코스: 여산 순교지→천호성지
		담당신부 시 간	담당신부 시 간
23	일	김기곤 신부 오후 1시~4시	김준호 신부 낮 12시~4시
30	일	김의철 신부 오후 1시~4시	김동준 신부 낮 12시~4시

※ 가정기도 독서: 시편 89: 1~9 요한 12: 44~50

잡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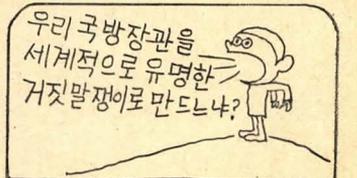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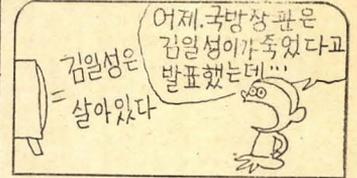
十 정의와 평화

보도를 통하여 기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한국천주교 정의 평화위원장이신 이돈명 회장께서 10월 29일 구속되었습니다. 5·3 인천사태와 관련하여 당국의 수배를 받아오던 이부영씨(전 동아일보 기자, 현 민통련 사무처장)에게 5개월여 동안 수속을 제공한 사실이 구속 사유이며 적용법조는 국가보안법(편의 제공)과 범인은닉 조항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전주 정평회는 11월 6일 임시회의를 갖고 이회장 구속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한바 ①각 본당에서 11월 23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미사에 이회장에 대한 강론을 실시하고, ②11월 25일(화) 오후 7시30분에 전주 중앙성당에서 박주교님 미사주례와 김병상 신부(정평부회장, 인천교구 중대리)의 강론으로 이돈명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양심수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며 성명서를 발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도회에 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주교구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회장 이 수 현 신부

요심이 (694) 김병오



☆ **축! 개원**

김 이 비 인 후 과 의 원

김 형 겸(빌리버)
남원시 용성의과 앞

☎ 32-7117 · 32-7116

사조참치 전북대리점

초저온(-55.0C)
무공해 참치!
횡감참치, 알, 내장

숲정이슈퍼마켓

김 원 겸(시릴로)
전화 3-3550

코오롱
MANSTAR



맨 스타
전주특약점

프로 월드컵 중앙동 직매장

★ 맨스타 결혼예복 완비(바바리, 정장, 맨하탄 Y샤츠, 벡타이) ★ 맨하탄 오리털 파카 입하

주: 김 아드리야노 ☎ 8415

전주시 중앙동 3가 26-1(중앙동 풍년제과 앞)

간호원 구함

* 간호보조원 자격증 소지자로 만19세~20세 이하의 미혼여성

- ※ ①자격증 원본(지참)
- ②이력서 1통(사진첨부)
- ③주민등록등본 1통 구비하여 11월 30일까지 직접 면담바람
- ※ 교우환영 전화 ①1719 명동피부과 의원

베소라성서 강의

나인 청년의 부활

-사랑의 힘-

(루가 7: 11-17)

제1 지구 각 본당소식②

제40회 졸업기념 전통천주교회 성심유치원 그림전시회: 12월 5일~6일(2일간, 10시~오후 7시) 전북예술회관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 감사제 감사헌금은 연말대로 봉헌합니다.
1. 금주는 가정주간입니다. 온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우리를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2. 사목회 상임위원회: 27일 저녁 8시 상임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3. 구역봉사자 모임: 28일 저녁 8시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완수에 노력합니다
4. 부녀회 월례회: 25일 어머니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5. 유아영세식: 29일 오후 3시 대부모님 모시고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6. 성탄 성가연습: 11월 25일부터 성가대 자매님들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7. 교무금 납부의 달: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주님과 약속한 교무금-12월까지 완납하십시오
8. 공소 순회미사: 29일 저녁 7시, 신교리공소
9. 금주전례: 해설-전병구, 독서-봉헌-배기창 부부 신자기도-김적희 부부, 촛불봉헌-노원규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명자, 독서-봉헌-손소부 부부 신자기도-문명식 부부, 촛불봉헌-손만술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63,092원 교무금: 329,000원
지난주 신축금: 15,000원 감사헌금: 421,000원
아파트 봉헌금: 172,830원 교무금: 286,000원
신축금: 20,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사목회: 30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2. 반회장회: 27일(목) 오전 10시30분
3. 유아세례: 29일(토) 저녁 6시30분 28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청년성가대 성가연습: 매주일 오후 6시30분 매주 화, 목요일 저녁 8시
5. 교무금 미수 완납바랍니다
6. 반회장 연수: 26~27일-홍안나·남루시아·히메테사·조베로니카, 29~30일-백모니카·김마리아·이요안나
7. 10만단 목주기도 봉헌: 87:035단
8. 가정방문: 26일 오후 2시-대평6반(최마리아), 27일 오후 2시-진북3반(양성년), 28일 오전 10시-대평3반(송루시아), 반미사-저녁 8시30분
9.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공사헌금: 30만-익명, 3만-송정래, 2만-익명, 1만-김순자, 계-38만원 누계-28,547,000원
10. 축! 결혼: 30일 12시 신랑-조재현(요셉)군, 신부-송명숙양
11. 금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탑pr, 토-셋별pr
12.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강기연 ②강주호 봉헌-김수영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강년, 독서-①천 건 ②최창기 봉헌-조성호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76,950원 교무금: 474,150원
평신도주일 2차헌금: 96,410원

(삼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 ※ 미사시간 변경
평일: 오후-7시, 월-오전 6시30분
주일: 오전 9시-학생미사, 10시30분-공식미사, 오후 3시-어린이미사
1. 제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견진: 12월 7일 견기, 견진신청서 접수 빨리하세요
3. 전신자 피점: 25일 저녁미사부터~27일까지 특히 견진받으실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 4. 가정방문: 28일-외어두
5. 감사: 순정이 은인-이정우·이수복·최용선(1구좌), 장례를 및 카바-제대회, 의자 2개-영미사진관
□ 지난주 봉헌금: 104,470원 교무금: 7,000원
2차헌금: 21,17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덕 철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사목회: 27일 오후 7시30분
2. 공소 추수감사미사: 30일 광곡리-오후 3시, 마음리-오후 5시
3. 성가대 모집: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본당의 청년들은 성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 바랍니다
4. 금주전례
본 당: 해설-고정수, 독서-①장현주 ②김한기 봉헌-한영수 부부
평화동: 해설-문치구, 독서-①김화영 ②김나섬 봉헌-고광필 가정
차주전례
본 당: 해설-김은경, 독서-①김한기 ②조정웅 봉헌-강남순 부부
평화동: 해설-함문준, 독서-①박병환 ②김화영 봉헌-강수중 부부
□ 지난주 봉헌금: 본당-285,735원, 평화동-95,980원
계-381,715원 평신도주일 헌금: 70,910원
교무금: 357,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 사무실 83-5085번

- 1. 설마리아·구리아: 오늘 오후 2시
2. 전통 올드레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예비신자 교리반 신설: 노인반(60세 이상)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사제관 2층
4. 가정방문 일정: 오전 9시30분~12시, 오후 2시~5시 25일~29일-홍남동·남노송동, 12월2일~6일-전동·중앙동·경원동·다가동, 9일~13일-기타
※ 이미 방문한 등에 거주하는 누락된 가정은 사무실에 신고바랍니다
5. 성심유치원 그림전시회: 12월 5일~6일(오전 10시~오후 7시), 전북예술회관 유아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특히 성심유치원 졸업생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6. 글로리아 성가대 임원개편 단장-강남수, 부단장-김영란
7. 감사: 성당일자 방석을 새로 해주셨습니다 신일균·유기자 부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기정희, 독서-①최병래 ②이덕수 8시 30분: 해설-방유경, 독서-①유공수 ②김홍기 공식미사: 해설-백홍자, 독서-①최병남 ②김병오
□ 지난주 봉헌금: 960,420원 교무금: 637,000원
평신도주일금: 237,33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성서주간 서적 전시회: 오늘 새벽미사~저녁미사 까지
2.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참기를 판매: 글라라회에서 봉사
4. 수요성서 강좌: 민수가 1장~15장
5. 철야기도회: 28일 밤 11시
6. 유아세례: 30일 10시,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7. 축! 결혼: 30일 12시, 효자동성당 신랑-김원수, 신부-전후임(아가다)
□ 지난주 봉헌금: 568,940원 교무금: 370,500원

농민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외국 농축산물 수입을 중단하라!

- 수입실태와 문제점 -

한국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화 ⑤ 4205

온갖것이 엄청나게 수입되는 외국 농축산물

- 농민은 농사지를 꺼리가 없다 -

- ◆ 350여가지 농축산물 수입 : 간장, 된장, 고추장, 오이장아찌, 쌀, 밀, 옥수수, 콩, 조, 수수, 귀리, 팥, 녹두, 완두콩, 감자, 대추, 자두, 마늘, 양파, 고추, 참깨, 땅콩, 유채, 양배추, 후추, 생강, 오이, 상치, 파, 당근, 부추, 참기름, 국수, 식빵, 누에고치, 머싯, 바나나, 파인애플, 건포도, 꽃감, 오렌지, 감귤, 배, 레몬, 면화, 커피, 원당, 코코아, 당밀, 타피오카, 아몬드, 김치, 겨자, 새우젓, 마른해삼, 식초, 쇠고기, 비육우, 젓소, 돼지고기, 양고기, 닭, 칠면조, 오리, 곰, 개, 뱀, 지렁이, 우유, 분유, 녹용, 소꼬리, 소뼈, 토마토페이스트, 쇠고기가루, 닭고기가루, 양송이수프, 소꼬리수프 등등
- ◆ 수입량 : 82년 11억 8천 3백만달러 (1조 55억원). 83년 15억 5천 3백만달러 (1조 3천 2백억원). 84년 13억 8천 2백만달러 (1조 1천 7백 47억원)
쇠고기 (80~84년) 14만 7천 311톤 (98만 6천 983두, 2억 4천 5백 5십만근)
소 (80~84년) 육우 14만 3천 527두 젓소 3만 7천 28두
소와 쇠고기 수입에서 남긴 이익 (74~84년) 6천 1백 54억원 (농수산부장관 국회답변)
- ◆ 어디서 수입하나? : 외국농축산물 중 곡물(쌀, 밀, 콩, 옥수수등)은 거의 (99%) 미국의로부터 수입하고 축산물은 50%를 미국으로 부터 수입.

이 엄청난 외국 농축산물 수입피해

① 농사지를 꺼리가 없게 한다 - 외국 목화, 밀, 콩의 수입으로 국내 목화밭, 밀밭이 사라지고 유채, 콩, 보리밭도 사라져 간다. 미국 담배가 수입되면 담배 농사도 끝장. 농사지를 꺼리가 없으면 농민은 죽거나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다.

② 노는 땅이 있어도 작물을 심지 않는다 - 경지 이용율이 65년 157.8에서 83년에는 123.8로 떨어짐 (겨울 논, 밭에 보리를 심지 않고 텅 비워 놓는다)

③ 적자 농사로 농민을 빚더미에 허덕이다 죽게 한다 - 돼지고기 수입으로 돼지 나물파동 (78년) 쌀 수입으로 쌀값 폭락 (81년) 최근에는 수입양파로 양파값 폭락, 바나나 수입으로 참외, 수박등 여름 과일값 폭락, 외국소와 쇠고



→ [지난 4월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시 공항에서 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 데모를 하고있는 미국교포들]

기 수입으로 소값폭락(소사육 농민 2조원 적자), 젓소값 폭락, 분유 수입으로 우유버림, 고추 고추장 수입으로 고추값 하락등 적자 농사로 농가 빚더미 증가(호당 300만원), 빚때문에 죽고, 소값 폭락으로 죽고

특히 소의 경우 정부가 용자까지 주면서 권장해 놓고는 외국소, 쇠고기를 수입하여 똥값이 되게 했으면, 당연히 피해를 보상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

④ 국민의 생명줄이 외국상인의 손에 - 국내 농업 파괴로 식량자급도(48.9%)는 떨어져 식량의 절반을 외국에 의존 함으로써 국가 안보 자체를 위협

⑤ 식량 수입에 막대한 외화 소비 - 우리의 피땀 흘려 번 돈이 외국에 흘러가 외국빚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⑥ 농약에 오염된 식량(독약) 생산 - 농사가 수지 맞지 않아 농약, 화학 비료에만 의존한 농사를 짓다 보니 식량에 중금속 오염. 식량 수입과정에서도 방부제 처리등으로 오염문제 심각(부산에서 옥수수 하역하던 인부가 질식사하여 죽음)

⑦ 노동자문제, 도시 빈민문제 심화 시킴 - 외국농축산물수입 통한 낮은 농산물가격 정책은 이농행렬을 증가시키고 저임금정책의 토대가 되어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 시키고 빈민을 더욱 확대 시킴

⑧ 국민경제의 기초인 농업파괴로 국민경제 자립 안됨 - 외국에 예속되어 감

⑨ 외국농축산물 판매 이익금이 독재정치를 유지하는 정치 자금으로 유용 - 쌀 수입 판매 차익으로 미국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주어 유신독재정권을 지지하게 한「박동선 사건」, 박정권 시절 양곡을 파는 외국 업자들로부터 일정책의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것(조선 82년 2.29)등이 한 예.

누가 왜 수입하나?

재벌등 국내의 독점자본의 이익과 미국의 요구에 의해 정부가 수입한다.

우리나라의 재벌등 독점자본가들은 대부분이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나 각종 정부의 특별 혜택을 받고 노동자들의 노임을 적게 줌으로써 폭리를 얻고 있다. 원료, 기술, 자본을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상품생산을 하는 재벌기업이 마음대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노동자의 임금이다. 그런데 임금을 아무리 적게 주고 싶어도 굶어 죽도록 해서는 일을 시킬 수 없으므로 식량인 농산물값을 낮추는 것은 낮은 임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을 낮추려면 물량이 많이 남아 돌아야 함으로 외국 농축산물을 엄청나게 수입한다.

또 미국등 외국은 자기나라 농민보호(수매, 비축등)에서 오는 부담을 덜기 위해 약소국인 한국에 농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게 줄 수 있도록 하여 이익을 더 많이 얻게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값싸게 생산된 옷, 신발, 전자제품 등 소비재를 자기나라 국민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삼중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외국 농축산물 수입을 특히 미국은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소맥이 풀(알파파초) 담배, 미국 물까지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돼지고기 통조림, 과일통조림, 담배등의 수입을 곧 자유화할 방침이어서 외국농산물은 더욱 세차게 쏟아져 들어올 판국이다.

결국 농민이 적자로, 노동자가 저임금으로 본 손해는 국내 재벌에게 일부 돌아가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 사람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이 와중에서도 정부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그 이익금이 지금까지 어디에 쓰여졌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외국인의 손이 4천만 국민의 생명이 쥐어져 있다.

험한 외국 농축산물을 사다 먹는 것이 좋다는 주장에 대하여

— 나라 망치는 엉터리 이론, 비교우위론 —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비가 외국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값싼 노임으로) 공산품 생산을 지원하여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로 값싼 외국 농축산물을 수입해 먹는 것이 좋다는 소위「비교우위론」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정부는 외국농축산물 수입을 정당화해 왔다.

이같은 정부 주장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여 현혹되기 쉽지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엉터리 주장이다.

왜냐하면 원래 비교우위론은 농민이 농사 말고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수입과 수출이 균형을 이루어 항상 식량을 사먹을 수 있는 외화가 있어야 하며, 공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독점가격으로 팔리는 상품이 없고, 실업자가 없어야 하는 등 몇가지 전제 조건이 갖추어 지는 것을 가정하고 만든 이론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적자무역에다, 대학졸업생도 취직 못하는 심각한 실업에다, 대부분의 상품이 독점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세계 식량 사정도 소비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앞서가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보는 것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난 만치, 우리가 사먹는 세계 식량 사정은 어둡다. 더우기 식량을 무기화하여 정치, 경제적인 지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국제 상황에서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면서 주권 국가로서 행세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비교우위론을 앞세워 농업정책을 하는 나라는 없다. 비교 우위론이 생겨난 영국에서도 농업보호를 통해 식량 자급율이 80%나 되고 이 바탕위에 영국의 공업은 발전했다.

원래 비교우위론은 투자할 것은 다 투자를 해 놓은 상태에서 서로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라고는 자갈과 잡목밖에 없었지만 농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그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정부의 주장을 적용하더라도 쇠고기 수입보다는 국내 생산이 유리하다. 농촌경제연구원(농수산부산하) 조사에 의하면 쇠고기 1톤을 수입하기 위한 외화를 벌기 위하여 수출용 공산품 생산에 투자한 돈을 농업에 투자하면 쇠고기 4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비교우위론을 앞세워 농산물수입 자유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내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겉으로 내세우는 농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결국 이 논리는 농민과 나라를 망치고 있다.



수출을 하려면 상대국의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수출만이 살 길이고, 수출하려면 상대국의 농산물을 사줘야 한다"는 말로 농산물을 수입을 어쩔 수 없는 것인양 합리화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농민 중에서도 간혹 이러한 말을 앞뒤 생각도 안해보고 그냥 믿고 "농민이 참아야지, 나라가 살아야 농민도 살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과연 이같은 주장은 진정 나라를 살리는 주장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농업희생을 바탕으로 한 수출위주의 공업화 경제정책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다.

원래 알찬 국민경제 자립발전은 농업등 기초산업을 발전시켜서 자본과 원료공급과 판매시장 기능을 충실히 다져 놓은 다음 가능한 외국에 덜 의존하는 공업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자본, 원료를 외국에서 들여와 농민과 노동자를 저노임과 저농산물가격 정책으로 희생시키는 토대위에서 공업화를 하고, 국내 구매력도 없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농민, 노동자 희생으로) 상품도 외국시장에 판매 (수출) 하는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해외 수출 시장에서 일본, 미국등의 외국계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질을 높여서 경쟁할 엄두는 못내고 싸구려로 팔아 수출시장을 확보하려 했다.

여기서 생긴 적자는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재벌 기업의 손실을 보충하게 하거나 값싼 외국농축산물을 수입하여 남는 이익금으로 적자를 보충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재벌기업은 살이 쪼가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의 돈이 외국으로 그만큼 빠져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경제는 갈수록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오늘의 우리 경제는 수출해서 번돈 보다 수입액이 더 많아 무역 적자가 늘어가고, 해마다 외국에서 빌린돈의 원금과 이자도 갚지 못해 더 많은 외국 빚을 빌려옴으로써 국민 1인당 빚은 100만원, 총 453억불(40조원)이 넘는다.

반면 재벌기업은 농민과 노동자가 생존의 막다른 길목에서 고생하고 나라가 빚더미에 허덕이든 말든 독점이익을 섭취하여, 30대 재벌이 국민 총생산액(GNP)의 87%를 점하고 재산은 84조 4천 4백 13억원, 은행용자도 12조 607억원 이상을 독식해서 쓰고 있다. 이런식으로 가면 조만간에 국민경제는 완전히 파탄을 할 수밖에 없다. 소수만 살찌우는 이같은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농축산물 수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농축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농업등 기초산업을 보호하여 새롭게 자립경제 발전 대책을 찾아갈 것인지?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농민도 죽고 나라도 죽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수출을 위해 외국농축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용납해야 되겠는가?



[소몰이 시위 진안에서의 시위모습]

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운동은 민주화와 통일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 운동은 농업보호 발전을 통한 자립경제를 이루게 하고 이땅의 민주화를 가져오게 한다. 나아가 외세의 경제 침탈을 막아 평화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며, 이날이 오면 농민의 진정한 인간된 삶은 확고히 보장된다.

농민과 이겨레와 나라를 죽이는 외국 농축산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 ① 먼저 직접적인 피해자인 농민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 (농산물 수입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 외국농축산물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적극적인 집단항의등)
- ② 외국농축산물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고 국내 생산 농산물을 먹는등 생활속에서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외국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꼭 먹지 않아도 될 가공식품인 코카콜라, 커피, 초콜렛, 콘칩, 빵등을 우리 국민이 계속 먹는 한 외국농산물 수입은 중단되지 않는다. 식생활의 서양화는 우리의 주체적인 삶까지 좀먹는다.)
- ③ 도시 노동자등 소비자도 농민과 힘을 합쳐 외국농축산물을 막는 운동을 펼쳐야 정당한 임금을 받고 건강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 이웃에 돌려가며 봅시다 ◆